

“자연환경과 사찰의 조화 아름다운 사찰 만들기로...”

창립 30주년 학술대회 개최 사찰조경연구소 홍광표 소장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찰의 환경문제는 자연과 문화적 건강성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불사를 진행해온 탓입니다. 이전 사찰조경연구소가 사찰 건축과 조경의 모범을 제시해 나갈 겁니다.”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사진)가 올해로 창립 30주년 맞았다. 연구소는 이를 기념해 12월 11일 동국대에서 ‘아름다운 사찰 만들기’와 ‘사찰조경’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고 우리 전통 사찰의 이상적, 현대적 복원 방안을 모색했다.

故 공태훈 박사의 주도로 1974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창립된 사찰조경연구소는 사찰건축 조경 역사 지리 불교미술 등 각 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연구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전통사찰 경관과 입지성, 공간구성 기법, 경관구성 요소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사찰의 복원 및 현대사찰의 장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왔다.

84년 동국대 조경학과 전임교수로 부임하면서부터 연구소 활동을 시작한 홍 소장은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불교생태학과 관련 연구를 우리 연구소는 이미 30년 전부터 실행해온 셈”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홍 소장은 “한국의 사찰의 전통적 조경원리를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질서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최근 이러한 면이 무시되면서 사찰의 경관과 정체성이 손상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연구소가 쌓아온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에는 ‘아름다운 사찰을 만들기’ 캠페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제1회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



문화유산에 관한 학술연구, 보존관리, 봉사활동 유공자에 대한 발굴 및 시상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제정된 대한민국문화유산상이 12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첫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대한민국문화유산상은 ‘학술·연구’ 부문에 안휘준 교수(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와 전상운 前 문화재위원, ‘보존·관리’ 부문에 전홍수 대목장(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과 김동휘 한국등잔박물관 관장, ‘봉사·활용’ 부문에서 (사)한국의 재발견(대표 손용해)이 수상했다. 박익순 기자

불교사회복지대회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 법자)이 2004년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12명을 선정했다. 유공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복지시설단체 운영부문, 불교사회복지발전 공헌부문, 자원봉사활동 개인부문으로 나눠 각각 4명씩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12월 15일 종로 하림각 대연홀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선재동 자원 원장 지산 스님,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고재욱 관장,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석영 사무국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영례씨가 받았다. 김은경 기자

불교사건연합회 새회장 전제우 씨

전제우씨(사진)가 대한민국불교사건연합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대한민국불교사건연합회는 지난 11월 22일 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개편했다. △고문: 관조 스님, 안장현 △자문위원: 선암·법타 스님, 이병윤, 김우영 △부회장:김광동, 조현숙 △감사: 고희택 △지도위원: 윤종일 △신임간사: 이한규(총무), 박정숙(재무), 강승규(연구), 강창규(사업), 유원식(홍보), 하호숙(설외)



불교출판 '거목' 이봉수 씨 타계

68년 보련각 설립 600여권 발행

40여년 간 불교출판계를 일궈 온 도서출판 보련각 이봉수 대표가 12월 3일 별세했다. 향년 72세.



불교출판 1세대인 이 대표가 불교출판 외길을 걷게 된 인연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부분의 경전을 필사해서 봐야 할 정도로 ‘불 만한’ 불서가 없던 시절, 이 대표는 직접 불서를 만들어 보급해보자는 원력을 세우게 됐다.

68년 불교전문 출판사 보련각을 설립해 본격적인 출판 사업에 뛰어들어 이 대표는 이후 ‘최초’라는 수식어를 단 책들을 줄줄이 선보였다. 최초의 독송경집 <불자수지독송경>(1974년)과 최초의 한글 다서(茶書)인 <한국의 다도>(1975년)를 비롯해 뇌허 김동화 박사, 이종의 박사, 효당 최범술 스님 등 당대 내로라하는 불교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불교사상전집>(전10권, 1973년)을 선보여 불교출판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7편짜리 <불교대사전>이 한글로 된 최초의 불교사전임에도 10년이라는 시간과 적지 않은 빛을 남기는 등 좌절을 겪기도 했다. 초판을 20~30년간이나 팔지 못한 책도 수두룩했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불자들의 책꽂이에 불서 한 권 들 수 있게 한 것”을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여겼던 이 대표. 현재 경제난과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침체를 맞은 독서시장 탓에 예전만큼 활발한 출판사업을 벌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보련각은 여전히 불자들에게 불심의 자양분으로 남아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계 봉사활동 성장 계기될 것”

경남자원봉사자 금상 수상 호천 스님



“개인이 받은 상이 아니라 불교계가 받은 상입니다. 불교계가 더욱 더 앞장서서 소외된 곳을 찾아가 보살행을 펼쳐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12월 7일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열린 2004 경남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금상을 수상한 호천 스님(화방복지원장·사진)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 대표 이사로 남해 화방복지원을 운영하며 노인복지는 물론 여성권의 신장, 청소년과 장애인 복지 등에 기여한 공적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독거노인들의 장례비 지원을 위한 장례지원봉사단체 백련회 결성, 저소득층 여성 자립기반 조성, 장학재단 설립 등으로 남해지역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제16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



조계종 제16회 포교대상 시상식이 12월 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대상 수상자인 동춘 스님(내원정사 조실·사진 왼쪽)과 공로상 풍경소리, 순안식 부회장(중앙신도회) 등이 참석했다. 동춘 스님은 “이 영광과 상을 포교하시는 분들께 돌리고 싶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제12회 보리방송문화상 시상식



제12회 보리방송문화상 시상식이 12월 8일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방송작가인 윤정광 씨가 총무위원장(사진)을 비롯해 MBC 다큐멘터리 ‘대자유인-한국의 비구니’와 ‘6인의 여행자’ 등이 올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불기협 의 밤·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



2004년 불기협의 밤과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이 12월 6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열렸다.

올해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선원인 기자상)을 수상한 김명환 기자(월간 불광)는 “불광 창간 30주년을 맞는 해에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일주문



구미 경실새 대표에
조계종 중앙총회회장 법등 스님은 12월 3일 열린 구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기총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됐다.



2004 승가의 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정범 스님은 12월 8일 월정사에서 ‘2004 승가의 밤’ 행사와 동문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BBS 총괄국장에 임명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 장적 스님(경산 안홍사 주지)은 12월 1일 대구불교방송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괄국장에 임명됐다.



서울불교전문강당 동문회 창립
서울불교전문강당 동문회 회장 각명 스님은 12월 15~16일 서산 안면도 롯데캐슬에서 동문회 창립법회를 개최한다. (011)9716-8130



해인사 교구환경위원장에
前 서울 경국사 주지 종본 스님은 12월 7일 조계종 제12 교구본사 해인사의 교구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울해의 '에너지 산업대상'
진각종 서울 강남 행원심인당 한준호(한국전력 사장) 신도회장은 12월 8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수여하는 울해의 '에너지산업대상'을 수상했다.



가족아카데미 부모교육 세미나
(사)가족아카데미 이사장 이근후 박사는 12월 14~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소외아동관리와 올바른 부모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우병 안길리는 소 개별 추진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12월 8일 강원도청에서 광우병 저항인자를 가진 소를 개발하기 위한 안길리·서울대 생명공학합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와 종교화합 실현을 위한 범불교도 대회

포항에서 대한민국의 불심을 바로 세웁시다!



정장식 포항시장은 52만 포항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와 강령을 어기고, 개인 자격이 아닌 포항시장의 자격으로 포항을 기독교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포항 기관장 홀리 클럽’의 창립을 주도하고 중심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포항실내체육관 등에서 개최된 ‘제1회 성서화운동세계대회’ 기간동안 명예준비 위원장으로 행사를 주도하고 신앙간증을 통해 “포항을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세계성서화운동’의 사업재원으로 포항시의 재정 1%(약52억)를 사용하려 기획했으며, 이밖에도 정 시장은 평소 근무시간 내에도 포항시 소속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직무와 관련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이 기독교 인임을 강조하며 변형된 선교활동과 종교편향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사태가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정장식 포항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 종교편향대책위원회(이하 종편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편위는 지난 12월 6일 종편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9일 낮 12시까지 정장식 시장에게 최후적으로 기관장 홀리클럽 탈퇴와 최근 정시장의 종교편향 정책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에 종편위는 오는 12월 15일 ‘사회와 종교화합 실현을 위한 범불교도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천명하며, 이 대회를 대구·경북 불교도들과 시·도민 3만여 명의 마음을 모아 사회와 시민화합 실현, 종교간 교류 및 종교화합 실현, 종교편향사태에 대한 대응 및 해결을 위한는 대회로 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구·경북 불교도들과 시·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548(2004)년 12월15일 오전 11시
- 장 소 : 포항시 종합운동장
- 주 최 :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조계종대구경북5본사, 태고종, 천태종 대구지구, 경북지부, 법화종 동해교구, 원효종, 원웅종 경북종무원, 진각종 포항교구청, 총지종, 본원종, 동국대학교 대구경북지구 석림동문회
- 주 관 :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종교편향대책위원회

종교편향대책위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1동 353-8(윤흥사 내 1층)
☎ 054)232-1900 팩스 054)232-5633